

EVERY ONE 경과 보고서



1 살이 된 시밤(Shivam)은 걸음마를 익히고 있습니다. 시밤은 EVERY ONE 캠페인을 통해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수 천명의 어린이 중 한 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이 EVERY ONE 캠페인을 통해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2015년까지 5세 미만 영유아 수 백만 명을 살리기 위해 2011년도는 어떤 모습으로 캠페인을 확장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EVERY ONE 의 큰 진전

세계 정상들은 2015년까지 아동사망률을 1/3로 낮추고 모성사망률을 1/4로 낮추자는 뜻을 담아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는 역사적인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기간이 5년밖에 남지 않은 현재의 진행속도로는 목표에 이를 수 없으며, 여전히 수 백만 명의 아동과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글로벌 캠페인 EVERY ONE을 시작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조속한 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진행

- 68개 저개발국 중 19개국이 MDG4(아동사망률 감소)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습니다.

- 17개 국은 1990년 대비 아동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 47개 국은 2000년 이후 더 빠른 속도로 아동사망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100만 명의 지역보건의료담당자(CHW: community health worker)를 포함해 350만 명의 보건인력이 부족합니다.
- 매년 4,800만 여성, 즉 여성 3명 중 1명은 출산 시 조산사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여성 200만 명은 아예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 12개 국에서 아동사망률 감소 속도가 낮아졌습니다.
- 여전히 페렴과 설사, 말라리아는 가장 큰 아동사망원인이며, 아동 사망 1/3은 영양실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의 40% 이상이 생후 첫 달 이내에 발생합니다.

2010년 주요사항

Every Woman, Every Child

2010년 9월, UN 사무총장은 모자보건과 관련하여 "EVERY WOMAN, EVERY CHILD"이라는 국제전략을 발효했습니다. 이는 저개발국의 아동과 어머니에게 보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무총장은 2015년까지 400억 달러(USD)(한화 약 4,4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캠페인 활동과 이를 지지한 여러 정부의 대규모 국제적 공조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여러 국가에서 시민 및 투표권들을 지원한 세이브더칠드런의 공이 컸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가는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이 다양한 기관이 모성보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로버트 오르(Robert Orr), 유엔사무차장보

G8과 아프리카연합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진 아동생존 문제

세이브더칠드런과 시민사회 기구는 캐나다 정부가 2010 G8 정상회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머니와 아동의 생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연합(The African Union) 역시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시한 정책 중 많은 부분을 수용하여 모성보건 분야 선언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동의 생존권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여러 주체들은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아동의 생존 문제를 논의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제네바(Geneva)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 보건 및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작업에 착수하도록 옹호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법적 문서를 통해 위원회는 각국이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아동사망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EVERY ONE

2010년 EVERY ONE 캠페인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은 4,000만 명이 넘는 영유아와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 보건시설이 거의 없는 **방글라데시(Bangladesh)** 시골 지역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여성보건의료담당자(female health worker)를 양성하여 신생아 사망률을 34%까지 낮추었습니다.
- 여성 11명 중 1명이 임신 및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3,600명 이상의 지역보건의료담당자(CHW)와 조산사(midwife) 양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5세 미만 영유아 12만 명 이상이 흔한 질병 및 급성영양실조 치료를 받았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에티오피아(Ethiopia)** 암하라(Amhara) 지역의 세 보건의료센터(health center) 세 곳에 모성병원(maternity ward)을 세우고 있습니다.
- **나이지리아(Nigeria)**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4개 주에서 보건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 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신생아 사망률과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기에 흔히 걸리는 질병에 대한 모든 예방접종을 마친 아동의 비율이 16%에서 47%로 상승했습니다. 출생 시 감염될 수 있는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 비율도 15%에서 63%로 증가했습니다.
- **라이베리아(Liberia)**에서는 15개 병원을 건립하거나 보수하여 약 20만 명의 아동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 어머니 및 신생아 관련계획(the Pakistan Initiative for Mothers and Newborns)을 진행하고 있는 **파키스탄(Pakistan)**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보건인력 3만 명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인력이 지원된 24개 지역에서는 지원그룹(support group)을 통해 가임기 여성 400만 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 **네팔(Nepal)**에서는 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및 주요 기구들의 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보건 시설이 닿지 않는 지역의 어머니와 신생아는 지역보건의료봉사자(community health volunteer)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말라위(Malawi)**에서는 보건부 및 타 협력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지역보건의료담당자(CHW)를 이용한 지역기반 모자보건사업의 실현가능성과 비용, 결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initiative)은 여성이 보건소에서 출산하도록 장려하며, 출산 이후 몇 주 안에 보건의로 직원이 세 차례 집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산모는 이 방문을 통해 전적인 모유수유 등을 포함한 자녀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멜린다 게이츠(Melinda Gates), 2011년 1월 27일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Davos Economic Forum)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살리기프로그램(Saving Newborn Lives Programme)에 대한 발표 중

긴급구호 현장의 EVERY ONE

긴급구호 상황에서는 설사와 폐렴, 콜레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긴급구호현장에서도 EVERY ONE 캠페인의 일환으로 5세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 및 어머니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40여 곳의 긴급구호 현장에서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2010년 1월 아이티(Haiti) 지진 발생 이후 세이브더칠드런은 2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도왔습니다. 현지 및 국제 협력기관과 협업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80개의 진료소와 영양지원시설을 설립했습니다.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한 2010년 10월에는 긴급히 치료센터를 열었으며 콜레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홍수가 발생했던 파키스탄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330만 명 이상의 피해 주민을 도왔습니다. 이동진료팀(mobile health team)을 운영하고 구급차를 지원하는 한편, 여성 지역보건의료담당자(community based female health worker)를 지원했습니다.

다른 긴급구호와 달리 큰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식량위기를 겪은 니제르에서는 약 20만 명의 5세 미만 아동과 3,200만 명의 여성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말라리아에 걸린 아동 9만 8,600명을 치료했습니다.

정치적 우선과제로서의 EVERY ONE

세이브더칠드런만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동 및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2015년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정치적 의지와 결연한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조하고 때로는 로비활동을 펼치면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사업장에서 직접 도움을 받는 아동 수 보다 수백만 명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개혁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이브더칠드런이 EVERY ONE 캠페인을 시작하고 첫 1년 동안 이룬 성공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에라리온(Sierra Leone)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곳 대다수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아기를 낳지 않거나,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가 단지 병원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협력기관과 함께 강력하게 펼친 캠페인 덕분에 시에라리온 정부는 2010년 4월 보건의료비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179% 증가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갖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준 세이브더칠드런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저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 시에라리온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동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습니다.”

- 시에라리온 정부 관계자(Representative of Sierra Leone government)

2010년 11월, 인도(India) 정부는 5개년 국가계획에 모자보건을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국가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 시에다 하미드(Syeda Hameed) 박사는 ‘모자보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 세이브더칠드런은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을 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기관이 옹호활동을 펼친 이후, 나이지리아(Nigeria) 정부는 제1차보건 및 모자보건에 중점을 둔 국가보건법안(national health bill)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정부 및 36개 주(州)정부는 보건분야 연간예산의 6%에서 15%로 확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EVERY ONE 캠페인 발대식에 350명이 넘는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 및 국내외 언론이 참여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모자보건에 중점을 두고 보건분야 비용을 3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역보건의료담당자

2010년 한 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저개발국 보건의료담당자(health worker) 8만 4,906 명의 양성을 지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목표는 2015년까지 보건의료담당자 40만 명을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담당자는 보건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훈련을 받고 적합한 장비를 갖춘 보건의료담당자는 대부분의 아동사망과 모성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담당자가 없으면 수 백만 명의 어머니와 아동은 질병을 진단받을 수도, 치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시 적절한 도움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담당자가 부족합니다. 보건의료담당자 중에서도 수 백만 명은 기초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적절한 훈련이나 장비, 기본적인 의약품이 부족합니다.

전 지구적 활동 함께하기

이미 EVERY ONE 캠페인을 통해 600만 건의 참여를 모았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수 백만 명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라톤에 참가했고, 어떤 이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이는 지지서명을 작성했고, 어떤

이들은 캠페인을 알리고, 또 어떤 이들은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들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이브더칠드런의 EVERY ONE 캠페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능한 널리 알리고자 옷에 세이브더칠드런 로고를 새겼습니다”

마리오 코그니그니(Mario Cognigni),
ACF 피오렌티나 부사장(Vice-President)

EVERY ONE 의 모금활동

캠페인 시작 이래, 세이브더칠드런은 5억 6,500만 달러(USD)(한화 약 6,210억 원)를 모금했으며, 모금 목표인 20억 달러(USD)(한화 약 2조 2,000억 원)의 75%에 달하는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3억 5,400억 달러(USD)(한화 약 3,890억 원)의 추가 모금이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주요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정부, 재단 및 개인의 후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한 아동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1만원 = 모기장 1개, 아동의 말라리아 감염 예방
- 1만 5천원 = 아동 10명에게 설사 치료제 제공
- 4만원 = 지역보건의료담당자(CHW) 교육 1회 제공

그러나 수 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욱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 98만2,000 달러(USD)(한화 약 10억 8,000만원)
= 탄자니아(Tanzania)에 모성보건센터를 세우고 훈련 받은 조산사와 지역보건의료담당자를 지원
- 160만 달러(USD)(한화 약 17억 6,000만 원)
= 영양실조 아동이 많은 파키스탄 180개 마을에 식량제공

기대되는 새 협력관계

본투케어(Born to Care): 모성보건및영유아교육센터(Mothercare and Early Learning Center)

모성보건 및 영유아교육센터(Mothercare and Early Learning Center)는 세이브더칠드런을 지원하고자 3년간 175만 파운드(한화 약 31억 원)를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모금된 돈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돕는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기업사회공헌 책임자(Hea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인 르안 앳킨슨(Leann Atkinson)은 세이브더칠드런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명성 또한 이에 부합하기 때문에 파트너를 맺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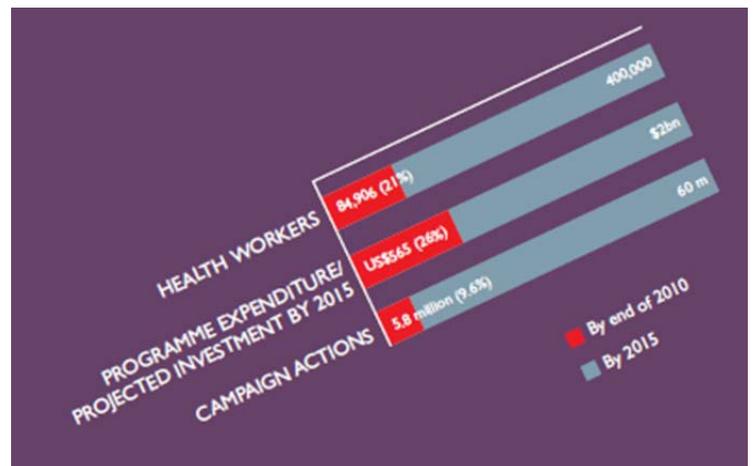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See Where the Good Goes™

미국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미국공익광고협의회(Ad Council) 과 함께 공익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See Where the Good Goes™라는 이 3개년 캠페인은 저개발국 현장에서 보건의료담당자가 하는 일과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아동사망현황을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캠페인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및 옹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은 마이크로사이트(microsite)와 소셜미디어, TV, 라디오 및 인쇄물 등을 통해 미국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캠페인 홍보기관인 BBDO가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공익광고협의회는 1년에 수 백만 달러(USD)에 해당하는 광고 시간 및 미디어를 후원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0년 EVERY ONE 캠페인의 성과

- ✓ 2010년 한 해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8만 4,906 명의 보건의료담당자(health worker) 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 사업비로 5억 6,500 달러(USD)(한화 약 6조 2,1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 ✓ 2010년 한 해 EVERY ONE 캠페인에 총 580만 건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도 함께하는 EVERY ONE

2011년 한 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전세계 2,500만 명과 함께 시급히 요구되는 아래 두 가지에 대한 획기적인 정치적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 전 세계적으로 350만 명이 부족한 보건의료담당자(health worker)의 충원.
세이브더칠드런은 2011년 UN Summit에서 각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자금을 37억 달러(USD)(한화 약 4조 700억 원)로 증액 지원.
저개발국 아동을 위해 새로이 개발한 백신 및 현존하는 백신으로 2015년까지 매년 200 만 명의 아동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위한 자금이 부족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6월 런던(London)에서 열릴 GAVI Alliance에서 재원지원 약속을 통해 세계 정상들이 실제로 모금에 기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아동과 어머니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취약 아동과 어머니에게 보건의료담당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